



## 영국 · 유럽 중앙은행,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

김세중 선임연구원

- 10월 6일 영국중앙은행(BoE)은 유럽 재정위기 확대에 따른 영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750억 파운드 상당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책금리는 0.5%로 동결함.
  - 머빈 킹 BoE 총재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로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 Scotia Capital의 이코노미스트 Alan Clarke는 많은 사람들이 BoE가 500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번 발표는 시기와 규모면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함.
  - 영국의 정책금리는 2009년 3월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인 0.5%로 유지되고 있으며, BoE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차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2,000억 파운드 상당의 자산을 매입함.
-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은 BoE의 2차 양적완화 정책 발표를 환영했으며, BoE가 향후에도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영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환영함.
  - 영국 경제가 최근 1년간 정체를 나타내고 있으나 영국정부는 GDP의 10%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BoE의 역할은 커지고 있으며, BoE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둔화가 차입제약보다는 암울한 경제 전망과 신뢰도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추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노동당 대변인도 경기전망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함.

■ BoE가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직후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 지역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매입과 유로지역 은행들에 대한 장기대출 등 두 가지 긴급조치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힘.

- ECB 의장인 장 폴 트리셰는 글로벌 위기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위기가 단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ECB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까지 400억 유로 상당의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2011년 10월과 12월 이후 각각 12개월 만기 대출과 13개월 만기 대출 등 두 가지 장기대출을 유로지역 은행에 대해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ECB는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런던 Berenberg은행의 이코노미스트 Holger Schmieding는 ECB의 과감한 결정이 경기침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함.
-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의 논의가 있었으나 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한편 트리셰는 ECB가 유로재정안정기금(EFSF)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각국 정부가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함.

- 미국과 유럽의 많은 정치인들이 EFSF에 은행자격을 부여하고 ECB가 EFSF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ECB는 ECB가 EFSF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EU규약에 위배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트리셰는 유로 통합 이후 10년간 각국 정부가 유로존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비난하고 신용시장과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을 촉구함.

(Reuters 등, 10/6)